10.15686/fkl.2026..68.119 OPEN ACCESS

『여성신문』 창간 초기의 주부 기획과 그 함의

김정은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목차

1 서론: 여성 대중과의 조우, 『여성신문』의 주부 기획
2 주부의 경험과 감정, ‘뉴스 가치’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3 ‘관리 정동’의 추인과 재배치, 주부 생활세계와의 교섭
4 결론을 대신하여: 여성해방의 시차와 대중적 여성주의 매체의 난점

이 글은 여성신문사의 연구 지원을 받은 ‘여성신문 연구팀(김정은, 윤조원, 임진하, 정고은, 정혜진)’에서 『여성신문』을 함께 읽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국문 초록

이 글은 1980년대 후반 여성운동의 대중화 국면에서 창간된『여성신문』이 여성 대중의 다수를 차지했던 '주부'와 조우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성취와 긴장을 규명한다.『여성신문』은 주부의 자살과 홧병, 양육과 돌봄을 둘러싼 죄책감과 책임의 감각 등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을 여성주의적 '뉴스 가치'의 대상으로 구성하고, 이를 특정한 감정과 책임이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귀속되는 구조적 문제로 재해석하였다. 한편 주거·소비·생활환경을 관리하는 주부의 감각을 공적 연대와 생활정치의 자원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는 여성의 '관리' 정동과 재생산 역할을 다시 추인하는 긴장 역시 나타났다. 이 글은 이러한 균열을 여성주의적 지향이 부족한 것으로 환원하지 않고, 여성해방의 전망과 여성 대중의 생활세계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을 둘러싼 변화가 여러 층위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여성해방의 불균등한 시간성을 드러내는 한편, 여성 대중의 구체적인 생활세계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대중적 여성주의 매체가 마주한 난점을 조명하고자 했다.

국문핵심어:『여성신문』, 여성주의 저널리즘, 주부, 정동적 불평등, 관리 정동, 생활정치

1 서론: 여성 대중과의 조우,『여성신문』의 주부 기획

이 글은 1980년대 후반 한국 여성운동의 '대중화' 패러다임을 중요하게 염두에 두면서, 당대 여성주의 사회세력이 발행한 여성주의 대중 매체였던『여성신문』이 인구사회학적으로 여성 대중의 다수를 차지했던 '주부'와 어떻게 조우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특히『여성신문』이 주부의 구체적인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감정 가운데 무엇을 여성의 문제이자 '뉴스'로 발견하고 의미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대중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성취와 긴장을 함께 조명해보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여성운동의 지형은 이른바 '대중화'와 '생활정치'라는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전까지 진보적 여성운동의 주류가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의 계급론적 시각에 주도되었다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운동의 주체와 의제를 구체적인 일상과 생활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1]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흐름이 여성운동 진영 내의 조직 구조와 노선의 차이 속에서도 공통의 징후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축이었던 '한국여성단체연합' 중심의 진영은 거시정치에서 가정과 일상의 영역을 아우르는 대중운동 노선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살림, 교육, 생태 등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2]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던 동인 모임 '또 하나의 문화'의 경우 창립 초기부터 이미 생활세계와 일상 문화의 변혁에 천착해 왔다는 점에서 노선의 뚜렷한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존 문제의식의 '연속성' 상에 놓여 있었다. 또 하나의 문화는 가정과 학교를 일터와 다름없는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들의 구체적인 체험과 언어로부터 대안적 지식과 삶의 형식을 모색하는 여성주의 문화운동을 1980년대 중반부터 전개해 왔다.[3] 또 하나의 문화는 운동의 연속성 상에서 동인지 6호를 『주부, 그 막힘과 트임』(1990)으로 발행함으로써 '주부'라는 주체와 의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며 여성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한

1 김영선은 1980년대 변혁적 여성 운동론과 여성운동의 조직화와 관련해 여성 노동자, 여성 농민, 빈민 여성, 여학생 주체에 있어 가장 마지막으로 그 범주에 포함된 것이 주부집단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영선, 「1980년대 여성운동의 새로운 여성 주체 기획과 주부운동론」, 『여성과 역사』 제28호, 한국여성사학회, 2018, 256쪽.

2 이러한 수용과 전환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한국여성민우회'의 창립과 대중 노선이라 할 수 있다. 김경희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창립 당시 도시와 농촌의 근로여성, 주부, 청년여성 등을 폭넓게 운동 대상으로 상정하였다가, 1989년경부터 조직 대상을 사무직 여성과 주부로 집중하였으며, 특히 1988~1989년 주부 중심의 소모임과 교육 활동을 통해 주부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민우회의 진보성과 대중성이 여성과 가족의 일상생활에 밀착한 의제를 정치화하는 '생활정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평가한다. 김경희, 「진보적 대중여성운동의 연속성과 변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25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195-196쪽.

3 김정은, 「또 하나의 집회-여성주의 문화운동 '또 하나의 문화'가 지닌 '제3의 장소성'」, 『구보학보』 제27호, 구보학회, 2021, 262-263쪽.

논의의 깊이를 더해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직적 차이와 각기 다른 궤적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 여성운동의 대중화 과정에서 '주부'는 여성주의 사회세력이 반드시 조우해야 할 중요한 여성 대중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여성운동의 대중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마주한 '주부'는 여성주의 사회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적 정당성을 시험하고 대중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조우해야만 하는 거대한 대중적 실존이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 대중의 절대다수가 인구사회학적으로 '주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 세력이 대중화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보수의 온상으로 치부되기도 했던 '가정'과 '주부'의 실존적 처지를 절대 비껴갈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부'라는 여성 대중과의 접속이 여성운동의 대중화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던 시기에, 『여성신문』 역시 보다 폭넓은 여성 대중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매체로 창간되었다. 『여성신문』의 전신은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여성사회교육에서 이어진 여성사회연구회가 1985년부터 격주간으로 발행한 동명의 회보였다.[4] 1987년 6월항쟁 이후 언론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매체의 창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기존의 회보 형식을 넘어 보다 폭넓은 여성 대중을 독자로 하는 언론매체의 필요성이 부상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1988년 8월 여성운동가, 여성학자, 주부, 문화예술인 등 각계 여성들이 여성신문사 창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국민주 모집을 통한 『여성신문』의 창간을 추진하였다.[5] 발기인 대회에서 낭독된 여성신문사 창립발기 취지문은 당시 여성운동이 "대중운동으로의 확산"이라는 전환기를 맞았다고 진단하면서, 여성 문제를 가정적·여성적 차원에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여성신문』의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6]

이때 『여성신문』의 주부 '기획'은 여성운동의 대중화라는 흐름만으로 설명

4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한국여성학』 제25권 제4호, 한국여성학회, 2009, 162쪽.

5 「〈사설〉 국민 주주로 탄생되는 '여성신문'」, 『여성신문』 창간준비호, 1988.10.28., 3쪽.

6 「민족공동체 회복을 촉구한다-여성신문사 창립발기 취지문」, 『여성신문』 창간준비호, 1988.10.28., 3쪽.

되지는 않는다.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동시에 "전 여성의 대변지"로서 대중적 매체를 표방한『여성신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대중을 지속적인 독자로 상대하며 이들의 현재적 관심과 생활의 요구를 지면의 의제로 구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의 대중화라는 지향이 대중매체로서의『여성신문』의 기획과 만나는 지점을『여성신문』의 창간준비호(0호)에 실린 초대 편집주간 고정희와 주주 대표 지영선의 대담이 잘 보여준다.

고정희 그동안 분석된 바로는 현재 우리 여성운동권을 둘러싼 출판활동을 대충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하나는 생존권 투쟁을 주축으로 한 여성근로자들의 주장을 담은 출판물들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 운동권의 출판물이며, 다른 셋은 기관지 성격의 출판물들이지요. 물론 그것들은 그 나름대로 전문화되어 있고 일정한 수준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출판물들과 여성신문은 경쟁 대상자일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성신문은 **전문화되어 있고 첨예화되어 있는 '운동권'과 보통 여성들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리 역할** 쪽에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영선 여성신문이 운동적 성격과 제도적 신문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나 **여성들에 의하여 전 여성의 대변지로 대중매체가 뜬 것은 여성신문이 최초**인 셈인데, 그렇더라도 독자층이 궁금하군요.

고정희 **일차적 독자층은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주부층을 겨냥**하고 있구요, 그 다음으로 사무직, 근로직 여성과 대학생을 꼽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층들이 여성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7] (강조-인용자)

---

7 고정희·지영선,「〈권두대담〉 0호를 내면서: 한국여성 현실과 언론매체」,『여성신문』 창간준비호, 1988.10.28., 4쪽.

해당 대담에서 고정희는 『여성신문』이 지향할 언론 활동이 종래의 전문화되고 첨예화된 '운동권'의 출판 활동에 머무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전문화되어 있고 첨예화되어 있는 '운동권'과 보통 여성들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선언한다. 고정희가 천명한 "보통 여성들"의 핵심 표상이자 조우의 구체적 대상이 바로 '주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정희가 "일차적 독자층은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주부층"이라 밝히고 있는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물론 여성 대중의 생활세계와 교섭하고 이들의 경험과 언어를 공론화하려는 지향은 『여성신문』만의 독점적인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또 하나의 문화 역시 여성 지식인이 여성 대중을 일방적으로 계몽하기보다 여성들의 체험에서 비롯된 목소리를 듣고 이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언어를 모색하는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매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자 대중매체를 표방한 『여성신문』은 여성 대중을 지속적인 독자로 상대하며, 이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감정, 생활의 요구 가운데 무엇이 '여성의 문제'이며 '뉴스'가 될 수 있는지를 매호 판단해야 하는 매체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여성신문』의 주부 관련 보도는 기존 여성운동의 주부 의제를 단순히 반영한 결과라기보다, 주부의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뉴스화하면서 '주부 문제'의 외연을 새롭게 구성해 나간 저널리즘적 기획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8]

이때 『여성신문』이 주부를 주요 독자로 호명하고 주부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를 공적 의제로 전면화하는 과정에서 주부의 삶을 조직하던 가족 관계와 돌봄의 책임, 그리고 변화하는 삶의 형식 속에서 발생한 경험과 감정을 주요한 '뉴스 가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된다. 『여성신문』은 이러한 경험과 감정을 개인의 병리성이나 단순한 심리적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특정한 감정과 책임이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문제화하였다. 이는 기성 언론에서 주변화되었던 여성의 경험과 감정을 공적 문제로 전환하는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8 이 글에서 말하는 『여성신문』의 '기획'은 『여성신문』 발간에 참여한 여러 주체들이 단일한 의도나 입장을 공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간 초기 지면에서 특정한 여성 대중을 독자로 호명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심을 의제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편집 방향과 담론적 경향을 지칭한다.

중요한 실천이었다.

당대 여성들은 계층과 노동 여부에 따라 상이한 조건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가족 관계와 돌봄을 둘러싼 책임이 집중되는 위치였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그러한 구조가 여성의 일상에서 어떠한 감정과 감각으로 경험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 글은 정동(affect)과 감정(emotion)의 개념적 차이를 엄밀히 구분하기보다, 감정을 개인의 내면이나 외부 영향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과 기호의 순환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관계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사라 아메드의 관점을 참조할 것이다.[9] 가족과 돌봄을 둘러싼 책임이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감정 역시 여성의 몫으로 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신문』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여성들이 경험한 감정들 역시 함께 기록하고 이를 문제화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감정이 집적된 아카이브이자 그 배분과 순환 방식에 비판적으로 개입한 장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여성신문』이 여성에게 특정한 감정과 책임이 귀속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다고 해서 『여성신문』의 지면이 여성에게 부과되어 온 역할과 감각을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특히 주거와 소비, 생활환경을 둘러싼 문제에서 『여성신문』은 가족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그 필요와 위험을 감지하며 이를 조정하는 주부의 역할과 감각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부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러한 감각, 즉 가족의 필요와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그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책임의 감각을 '관리 정동'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여성신문』은 이러한 '관리 정동'을 여성에게 귀속시키는 젠더화된 질서를 문제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를 새로운 사회적 실천의 가능성과 연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요컨대 이 글은 『여성신문』이 '주부'라는 여성 대중과 조우하면서 어떠한 여

9 사라 아메드는 느낌이 주체나 대상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의 효과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감정의 '사회성'에 주목한다.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38쪽.

성주의적 저널리즘의 성취와 긴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선『여성신문』의 주부 기획과 관련한 주요 기사들을 검토하면서, 주부의 경험과 감정이 어떻게 새로운 '뉴스 가치'를 획득하고 특정한 감정과 책임이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귀속되는 문제로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주부의 자살과 홧병, 양육과 돌봄을 둘러싼 감정, '정경화 신드롬'과 '슈퍼우먼 신드롬'에 대한 보도 등이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주거 위기와 소비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족의 주거와 먹거리, 생활환경을 살피고 조정하는 주체로 부상한 주부의 모습에 주목하고, 주부의 '관리 정동'과 재생산 역할을 둘러싼『여성신문』의 이중적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여성신문』은 주부가 일상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관리의 감각을 공적 연대와 생활정치의 자원으로 재배치하였으나, 이 과정은 동시에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다시 여성의 몫으로 추인하는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때『여성신문』의 '주부가 본 세상' 코너와 공해·소비 문제를 다룬 기사들을 중요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생활의 지혜' 등 정보성 기사가 다수 게재된 배경 역시 함께 해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여성신문』이 여성주의적 전망을 여성 대중의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 그리고 생활의 요구와 지속적으로 교섭한 매체였음을 밝혀볼 것이다. 여성주의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여성 대중을 적극적으로 상대했던『여성신문』은 이러한 교섭의 과정에서 나타난 성취와 긴장이 지면에 함께 포착된다. 이 글은 특히 주부의 감정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 주부의 경험과 감정, '뉴스 가치'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1980년대 후반은 한국 사회, 특히 여성운동과 여성학계를 중심으로 한 대안 담론의 지형 속에서 '주부'라는 범주가 새롭게 의미화되던 시기였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여성 노동의 문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는 모두 주부의 사회적 위치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는 서론에서도 논의했듯이 당시 여성 대중의 상당수가 주부로 존재하고 있었던 인구사회학적 사실[10]과 함께 여성운동의 대중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때문이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 '주부'라는 범주는 오늘날 흔히 연상되는 '전업주부'와 반드시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기혼여성을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 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주부'의 위치에서 인식하는 젠더화된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을 가리켜 사용한 "취업주부"라는 표현이 여성학적 담론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11] '취업'이라는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면서도 이들을 '주부'로 명명했다는 사실은, 직업을 갖는 것이 가족 관계 안에서 여성이 점하는 '주부'의 위치를 곧바로 해소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12]

이 글은 이러한 당대적 현실에 주목하여 '주부'를 '전업주부'와 동일시하기보다, 가족 관계 안에서 가사와 양육, 돌봄을 비롯한 재생산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됨으로써 구성되는 젠더화된 위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13]

---

10 1980년대 중반 주부의 인구 구성 관련한 통계를 언급하고 있는 이옥경의 논의에 따르면 "1983년 현재 15세 이상 기혼여성 중 비경제활동인구, 즉 전업주부의 수는 676만 3천 명이다. (이 중에는 기혼 학생도 약간 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도시거주 기혼여성의 약 66.4%인 478만 7천명, 군 이하 거주자의 49.6%인 197만 명이 전업주부"에 해당했다. 여성개발원의 「취업여성 실태조사」(1986)를 살펴보면, "전업주부는 대체로 교육정도별, 연령별로 현저한 기복이 없이 분포되어 있고, (남편의) 직종별·소득별로는 약간의 편차를 보이긴 하지만 역시 모든 직종과 소득층에 걸쳐 절대 규모로 상당한 숫자"에 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이옥경, 「주부운동의 논리와 조직」, 『여성』 제3호, 창작과비평사, 1989, 161-162쪽.

11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사례로는 다음의 글들이 존재한다. 이옥경, 「주부운동의 논리와 조직」, 『여성』 3, 창작과비평사, 1989. ; 박은하, 「24시에 배어 있는 내 삶의 의미-저소득 취업주부의 생활사와 생활세계」, 『주부, 그 막힘과 트임-또 하나의 문화 제6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0.

12 『여성신문』의 기사에서도 직업을 가진 여성이 여전히 '주부'의 위치에서 호명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현숙, 「〈기획진단〉 일가진 주부 위한 탁아정책 시급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감독 기구 설치 필요」, 『여성신문』 18, 1989.04.07.

13 물론 '주부'라는 젠더화된 위치의 공통성이 이 범주에 속한 여성들의 경험이 동질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층과 지역,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이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가족 내 재생산의 책임을 수행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되, 서로 다른 조건에 놓인 여성들에게 가족의 유지와 재생산에 대한 책임이 공통적으로 부과되었던 젠더화된 위치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이 글은『여성신문』창간준비호(0호, 1988.10.28.)부터 55호(1989.12.29.)까지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시기는『여성신문』이 창간 초기의 편집 방향과 주요 의제를 구체화해 나가던 때인 동시에, 여성의 노동과 가족 내 역할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였다. 이 시기『여성신문』은 '주부'와 관련한 여성학적 지식을 중계하는 한편 여러 코너를 통해 이를 저널리즘의 언어로 번역하는 시도를 보여줬다.[14]

호수	코너	제목	저자
3호	특집	가족이기주의와 주부의 삶: 전통, 가족이기주의, 그리고 미래가정	이영자
3호	기획진단	입시전쟁 치르는 어머니: 왜 어머니들이 고3병을 앓는가	김효선 (객원기자)
4호	기획진단	주부는 정말 소비전담자인가	
7호	기획진단	주부문화 변화하고 있다 (1) 주부가 찾는 나의 일 나의 세계	김효선 (객원기자)
8호	기획진단	주부문화 변화하고 있다 (2) 남편 의존 벗어나 홀로서기 원해	
8호	기획진단	병원마다 여자들이 만원이다	신혜선(기자)
9호	기획진단	주부문화 변화하고 있다 (3) 사회에 거는 기대 자식에게 쏟는다	윤양헌(이화여대 여성연구소)
9호	기획진단	'정경화 어머니'가 되려는 어머니들-딸의 성공이 나의 성공, 온갖 희생 무릅써	박효신(기자)
10호	기획진단	주부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4) 주부가 자신감 가질 때 가족관계도 잘 풀린다	최인자, 허인숙, 호양희, 김효선 (정리)
11호	특집	빈민 지역 탁아운동 어디까지 왔나 -자녀양육의 사회대책 시급하다	장현자, 전순옥, 김성주, 신혜선 (정리)
12호	기획진단	오늘의 여성농민 : 늘어나는 일과 빚 그러나 힘 키워간다-대중주체 여성농민운동 확산 움직임	김효선 (객원기자)

14 특집, 기획진단, 쟁점 코너에서 주부 관련한 기획 기사들이 많이 발견된다. 대대적인 보도가 아닌 단신성 기사는 목록화에서 제외했다.

18호	기획진단	일가진 주부 위한 탁아정책 시급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감독 기구 설치 필요	장현숙 (자유기고가)
20호	쟁점	일 안 가진 엄마들이 도전받고 있다-빛 안나는 가사노동 바른 이해 아쉬워	박효신(기자)
20호	쟁점	'빈 둥우리 신드롬'에 고통받는 주부들	차옥덕(한양대 사회학 강사)
21호	쟁점	일가진 엄마의 죄없는 죄책감 / 박혜란(상명여대 여성학 강사), 신경숙 (노바스코셔 은행 근무)	박효신(기자)
34호	생활환경	주부들 공해추방에 앞장선다 : 공추련 여성단체연합 등 조직운동으로 확산	
43호	기획진단	30대 가정주부, 왜 자살했나? : 사회진출 갈망하던 중산층 주부 끝내 죽음 택해	김효선, 박혜숙 (기자)
52호	주부가 본 세상	남현동 철거촌을 찾아서	이성미
53호	기획진단	생활 속에서 느끼는 주부의 스트레스를 말한다	유근주 (객원기자)
54호	주부가 본 세상	간첩조작사건관련 가족들의 농성장을 찾아서 -"누가 내 아들을 간첩이라 하는가"	이성미
55호	주부가 본 세상	장애인들의 보금자리 '물댄 꽃동산'을 찾아서: 철거 반에 부숴진 장애인 공동체-사회적 냉대딛고 20여 명의 장애인 보금자리 위해 고군분투	안경순

[표 1] 『여성신문』의 주부 관련 주요 기획 기사 (0호-55호)

이러한 기사들에서 우선 핵심이 되었던 것은 주부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여성신문』은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주부의 재생산 노동을 사적 영역의 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구조의 문제로 재맥락화는 글을 싣고 있었다. 3호의 〈특집: 가족이기주의와 주부의 삶〉 코너에 실린 한 기사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내면화가 여성의 일상에 작동하는 억압의 구조임을 짚고, '모성의 신화'가 가사노동을 여성의 본질로 고정한 이데올로기임을 비판했다.[15] 같은 호 〈기획진단〉 코너에 실린 다른 기사는 입시 경쟁이 어머니를 '가족이기주의'의 주체이자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 구조를 드러내어, 가정 내부의 갈등이 사회적 가치

15 이영자, 「전통, 가족이기주의, 그리고 미래가정」, 『여성신문』 3, 1988.12.16., 6쪽.

체계의 반영임을 명확히 했다.[16] 이러한 기사들은 주부의 문제를 개인 혹은 가정이 겪는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근대적 가족제도 그리고 성별분업이라는 구조의 문제로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여성신문』의 주부 관련 기획 기사들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여성신문』이 주부의 '감정'을 쟁점과 문제의 장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되는 기사는 43호(1989.10.06.)의 헤드라인이기도 했던 주부의 자살 문제를 다룬 기사였다. 해당 보도는 서울 대치동의 30대 주부가 책 외판원으로 일하다 영업 부진과 우울증 끝에 자살한 사건을 다루었다.

> 그의 죽음을 놓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지어낸다. 한편에서는 "너무 감정적이었다"거나 "정신질환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개인적인 결점에 의한 죽음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죽음을 계기로 취업현장의 성차별적 벽을 허물라고 웅변하기도 한다.
>
> 또 그를 알던 대학 친구들은 신문지상을 통해 이 소식을 듣고는 "끔찍하고 소름이 쫙 끼쳤고,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17]

그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출신 남편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둔 겉보기에는 안정된 중산층 여성이었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여성에게 열려 있는 일은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그리고 외판원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은 호의 사설은 고등교육을 받은 기혼여성조차 '사회와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18]

---

16 김효선, 「왜 어머니들이 고3병을 앓는가」, 『여성신문』 3, 1988.12.16., 8쪽.

17 김효선·박혜숙, 「〈기획진단〉 30대 가정주부, 왜 자살했나?」, 『여성신문』 43, 1989.10.06., 8쪽.

18 사설은 자녀가 취학하고 가정이 안정된 30대 주부들에게 취미나 교양, 자원봉사 이외에 '사회와 유기적인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일의 기회가 열려 있는지를 물으며, 고학력 여성의 협소한 취업 기회를 비판했다. 「〈사설〉고학력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더 넓게」, 『여성신문』 43, 1989.10.06., 5쪽.

기사에는 그의 유서가 함께 실리기도 했는데, 그는 유서에서 “기준치는 높고 능력은 부족”하다는 좌절감을 토로했다. 『여성신문』은 그가 느낀 고립감과 좌절감을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자아실현 욕망과 제한된 사회 진출의 현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감정으로 포착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유서에 기록된 좌절감은 『여성신문』의 지면에서 여성의 삶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감정으로 재구성되었다.


여성신문
기 획 진 단
30대 가정주부, 왜 자살했나?
사회진출 갈망하던 중산층 주부 끝내 죽음 택해
외관직 그만둔 후 급격히 침울해져
언제나 불복해 하던 가정주부
“기준치는 높고 능력은 부족해…”
그의 자살은 여성문제의 한 단면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 심한 갈등 숨어 있어
‘죽음’의 의미 신중히 받아들여야

[그림 1] 43호에 실린 주부 자살사건 기사와 유서

이러한 『여성신문』의 보도가 주목되는 이유는 당대 기성 일간지에서 단순히 ‘이색 사건’이나 파편화된 ‘짜투리 단신 기사’로 소비되고 묻혔을 주부들의 경험과 감정을 대안적 공론장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 있다.[19] 실제 창간 초기 편집부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했던 박효신과 창간 초기 객원 기자로 활동했던 김효선은 당시 기성 언론과 『여성신문』의 ‘뉴스 가치’ 판단 기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기도 했다.

김효선 선생님이 쓰신 남성 문화라든지 그런 거 그전에 볼 때 전혀 문제 아니잖아요. 기사거리 아니지. 근데…

박효신 그렇지. 그 변월수 씨 사건도 보통 일간지에서는 이렇게 1단으

19 김명혜 역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현황을 논하면서 주류 언론에서 여성 관련 이슈가 가정·생활·문화 부문에 한정되거나 정치·경제·사회 문제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이와 달리 『여성신문』은 ‘생활 속의 변화’에 주목하고 “아줌마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과 불만 등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대안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명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현황과 확산 전략」,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1년 가을, 429-431쪽.

로 조그맣게 나던 기사예요.

김효선 이색 사건 같은 거.

박효신 보이지도 않는 그거를 이슈화한 거지.

김효선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여성주의적인 그런 구조, 가부장제의 모든 모순이 담겨져 있는 그 사건이더라는 거잖아. 선생님이 가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황혼이혼 사건 그런 것도, 그렇잖아. 할머니 주책 떨어갖고 이혼 소송 낸 거. 그것도 단신 요만하게 난 거야. 그 『동아일보』였나? 휴지통인가? 만물상, 이런 데 나는 거야. 이색 사건 나는 데. 뭐냐면은 70살 먹은 할머니가 무슨 이혼 소송을 냈대. 그랬는데 법원이 해로하시라고 했대. 그러니까 할머니 망령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백년해로 하시라고 판결했다라는 거 요만한 거. 그러더래. 『여성신문』이 가보니까.

박효신 그런 거 찾아서 많이 했었어. 많이 했지.[20]

증언에 따르면 『여성신문』은 "보통 일간지"에서 "1단으로 조그맣게 나던 기사"에서 다루어진 사건의 여성주의적 뉴스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대대적인 기획 보도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이 인터뷰에서 언급되고 있는 안동 주부 사건뿐만 아니라, 43호에 실린 대치동 주부의 자살 사건 역시 『여성신문』이 여성주의적으로 '뉴스 가치'를 발견한 사례에 해당했다.

한편 『여성신문』은 당대 언론에서 사소하게 치부된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여성학 담론을 저널리즘의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독자층인 주부들이 '변혁의 언어'를 일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 주목될 수 있는 것이 1989년에 들어 총 4회에 걸쳐 연재된 〈기획진단 : 주부문화 변화하고 있다〉라는 코너이다. 이

20 김효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4.10. ; 김효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는 2026년 4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인근에서 김효선·박효신·박혜란의 구술과 김정은·윤조원·임진하·정고은·정혜진의 채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여성신문

기획진단

주부문화 변화하고 있다 ①

주부가 찾는 나의 일 나의 세계

가족이 여자 행복의 모든것일 수는 없다

가정 외 '새 집단에 소속되고픈 욕구' 높아져

주부의 소설습작

돌파구로 찾은 에어로빅

[그림 2] 7호 〈기획진단〉 코너에 실린
「주부가 찾는 나의 일 나의 세계」

연재를 통해 비판 담론이 보다 현실적이고 체험적인 차원으로 생생하게 확장되었다. 이 중 1회 연재분에서 『여성신문』은 주부병, 여가활동, 취업 열망 등을 다루면서 '나를 찾으려는 주부들'이라는 표상에 주목했다.[21]

이 기획의 핵심은 주부들의 변화를 단순한 세태 차원이 아니라 정체성 변화의 징후이자 내적 욕망과 관련한 실천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부의 인터뷰들을 기사에 삽입하는 한편 여성들의 독립적인 글 역시 병치함으로써, 분석적 담론과 주부 당사자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편집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구성은 주부들이 스스로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기 인식'을 위한 서사 구조를 제공하려는 『여성신문』의 편집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기획진단: 주부문화 변화하고 있다〉 코너는 중산층 도시 주부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같은 시기 『여성신문』의 다른 지면에서는 이와는 또 다른 결의 현실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었다. 전자의 기획이 중산층 여성의 자아탐색을 중심에 두었다면, 〈기획진단 : 오늘의 여성농민〉 등의 기획에서는 특히 농촌 여성의 현실이 여성문제로 제기되었다. 『여성신문』은 농촌 여성의 과중한 노동을 국가 정책과 사회 제도의 문제로 연결함으로써 '여성농민'의 문제를 사회 구조의 틀 속에서 해석했다. 가령 12호에 실린 한 기사는 농촌 여성이 가사

21 특히 「주부가 찾는 나의 일 나의 세계」(김효선, 『여성신문』 7, 1989.01.20., 8쪽.)는 우울증과 소외감을 호소하는 중산층 주부들의 사례를 다루며, 이들의 문화센터·노래교실 참여를 개인의 여가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읽어냈다. 같은 호의 다른 기사(신혜선, 「직업찾는 기혼여성 엄청나게 몰려든다」, 『여성신문』 7, 1989.01.20. 9쪽.)는 주부들의 취업 열풍을 통계와 사례로 보여주기도 했다.

노동자이자 농업생산자, 지역사회 활동가로서 삼중의 부담을 짊어진 현실을 전하며, 특히 돌봄의 공백을 여성 농민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일터에 나가기 위해 아이를 빈 방에 가두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로 부각했다.[22]

그런데 이러한 돌봄의 공백은 단지 여성 농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여성들이 처한 계층적·지역적 조건과 이들이 마주한 구체적인 돌봄의 현실은 달랐지만,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돌봄의 문제는 서로 다른 위치의 여성들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었다. 특히 '엄마'라는 기호에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결부되는 반복된 발화와 언어관습은 서로 다른 조건에 놓인 여성들에게 특정한 감정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여성신문』의 탁아 관련 보도는 이러한 감정의 귀속을 만들어내는 언어적·사회적 관습 자체를 문제시하기도 했다. 일례로 『여성신문』 38호의 '사설'은 "취업에 방해가 된다고 5살된 아들을 살해한 엄마" 사건이 실로 충격적이라고 논평하면서도, "탁아시설의 부재"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만 양육 책임감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기도 했다.

> 공장에 일나간 동안 아이들을 맡길곳이 없어 방 한구석 장롱과 아이를 한 끈에 묶어 두고 나온다는 어머니. 최근에도 어린아이들을 방에 놓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다가 불이나는 바람에 아이들이 도망도 못친채 숨진 가슴아픈 일도 있었다.
>
> 농촌에서는 아무데나 방치해놓은 아이들이 논에서 일하는 엄마가 빤히 보이는 옆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는 일도 종종 있었다.
>
>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책임은 그들의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가해졌다.**[23] (강조-인용자)

이 사설에서 주목할 것은 『여성신문』이 아이의 안전과 보호 실패를 둘러싼 책임

22 김효선, 「늘어나는 일과 빚 그러나 힘 키워간다-대중주체 여성농민운동 확산 움직임」, 『여성신문』 12, 1989.02.24., 15쪽.

23 「〈사설〉 5살 아들 살해한 엄마-탁아시설 부재가 빚은 비극적 사건」, 『여성신문』 38, 1989.09.01., 5쪽.

의 정동이 관습적으로 '어머니'라는 기호를 통해 여성에게 귀속되어 온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머니에게 가해졌다"는 서술은 이러한 정동의 귀속이 반복된 발화와 언어적 관습 속에서 순환하고 배치되어 온 사회적 과정임을 보여준다.[24] 이러한 지점은 『여성신문』이 사회경제적 주변부로서만 여성들이 지닌 주변성을 조명하고 여성들의 '차이'를 부각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주부가 겪고 있는 감정과 이와 관련된 실존적 상황은 뉴스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쟁점과 문제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판적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신문』이 '주부'의 병리적인 경험과 감정, 소위 '홧병'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8호에 실린 기사 「병원마다 여자들이 만원이다-안 아픈데 없어 병원 찾아도 '이상없다'」는 1980년대 후반 병원을 찾는 여성들(특히 주부층)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보도한 대표적 기사이다.

> 어디가 어떻게 아파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급증하는 것일까. 병원 대기실에서 만나는 주부들의 증세를 들어보면 예전 어머니들이 말하던 '홧병'이란 것이 현재에도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홧병의 증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병원을 전전하는 소위 하스피털 쇼핑, 둘째 신경·신체 증상으로 어느 한 곳이 아프거나 피부병으로까지 나타나는 경우, 셋째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위장병의 증세가 있다.
>
> (…)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아픔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지만 실제 병명이 나오지 않아 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찾다가 결국 귀착하는 곳이 신경정신과"라고 말한다. 진단상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다" "귀가 안들린다" "팔·다리가 몹시 저리다"는 등의 호소를 해 온다는 것. 이것을 의학적으로 '정신의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24 사라 아메드가 제시하는 '정동의 경제'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은 감정이 기호, 이미지, 담론에 달라붙어 이동한다는 점이다. 아메드에게 언어는 이미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특정 대상에 붙이고, 특정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은 정신적 갈등이 신체의 어느 한 부위를 통해 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경제기획원의 '질병에 의한 사망자 통계(1986년)'에 의하면 증상·징후 및 불명확한 질병에 의해 일년에 1만 9천 6백 32명의 여성이 죽었다. 이같은 사망원인이 모두 정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병원을 메우는 여성들의 깊은 속사정을 보면 개인의 질병이기에 앞서 '여성'에게 지워진 짐에 의해 생겨난 병이 대부분임을 알게 된다.[25]

이 기사는 신체적 이상이 명확히 진단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주부들이 겪는 고통이 개별적 질병이라기보다 일상 속에 누적된 정동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사에 등장하는 증상들은 '홧병'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는데 이는 신경성 위장병, 피부 질환, 불면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때 위의 기사는 특히 여성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종종 남편의 의처증이나 가정 내 갈등과 같은 관계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주체는 여성 자신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원인은 가부장적 가정과 사회 구조에 있음에도 병원에 '대신' 오는 존재는 여성이라는 이러한 서술은 주부의 병리성이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별화된 역할 분담과 억압적 관계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환기한다. 『여성신문』은 이러한 병리적 경험을 '여성이기에 짊어져야 하는 병'이라 표현함으로써 젠더화된 고통의 구조를 가시화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한 『여성신문』의 관심은 정신의학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시도를 통해 이어지기도 했다. 임상성학회 발족을 기념해 이뤄진 인터뷰에서 정신의학 전문의 정동철은 중년 여성들이 홧병을 겪는 주요 원인을 특별히 "성의 불만족, 억압에서 오는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러한 전문가의 진단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을 가시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주부들이 겪고 있던 고통의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

25 신혜선, 「병원마다 여자들이 만원이다」, 『여성신문』 8, 1989.01.27., 9쪽.

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 흔한 얘기로 40대 이후에 자기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일감을 갖던가 사회적 일 등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일감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박사님의 부인께서는 어떠세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만족해 하며 살고 있다고 봅니다. 나와의 관계도 내생각에는 문제가 없는 것같고 본인은 교회일에 열심히 시간을 내 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몰두하는 것도 도피행위중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 많던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사람의 경우는 원래 장인, 처남 모두 목사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교회일이 전적으로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26] (강조-인용자)

이러한 지점에서 인터뷰어가 인터뷰이의 아내 역시 일종의 병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고 다소 공세적으로 질문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신의학 전문가인 인터뷰이가 정작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인터뷰어의 판단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개별 여성의 성적 불만족이나 심리적 취약성이라기보다는 돌봄과 사랑 그리고 감정 조절의 역할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반면에 여성들이 겪는 분열과 좌절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지와 응답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주부들이 경험한 병리적 증상은 감정의 제공과 감내는 여성에게 요구되면서도 여성에 대한 감정적 지지는 부족한 '정동적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27] 이러한 정동적 불평등은 앞서 살펴본 '주부 자살'이라는 극단적 사례

26 「〈금주에 만난 사람〉 '여성의 홧병' 자기실현으로 극복해야-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여성 돕는 정동철 박사」, 『여성신문』 35, 1989.08.04., 3쪽.

27 캐슬린 린치 외 『정동적 평등-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의 논자들은 "모든 인간이 내보이는 의존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존 자유주의 전통과 급진적 평등주의 전통에서 정동적 불평

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여성들이 겪은 정동적 불평등과 관련해 사랑과 돌봄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에 소요되는 노동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탁아' 논의를 경유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성신문』은 창간 초기부터 탁아를 여성 노동권 보장과 사회 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위치시키는 다양한 기사들을 싣고 있었다. 탁아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사와 공단 및 빈민 지역, 농촌 여성들이 처한 양육 현실을 다룬 보도들은 탁아 문제를 여성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분담해야 할 책임으로 재구성했다.[28]

김성주 저는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없이 탁아소 문제만을 분리시켜 생각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도 여성노동력, 특히 기혼 여성노동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문제는 어느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져야 해요. 아무리 탁아소가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하루종일 노동에만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순옥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탁아소 문제는 직장내에서 함께 풀 수도 있다고 봐요. 저희 청계피복노조의 경

등의 문제가 다루지 않았음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정동적 불평등의 양상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는 정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이 요구들을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정동적 불평등'이라고 부르는 개념의 핵심적 개념이다." ;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역, 『정동적 평등-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 아카데미, 2016, 30-31쪽.

28 「YWCA 시범 탁아소 개설—인천 공단지역 일하는 어머니들 이용」, 『여성신문』 3, 1988.12.16.; 장현숙, 「〈기획진단〉 일가진 주부 위한 탁아정책 시급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감독 기구 설치 필요」, 『여성신문』 18, 1989.04.07. ; 「빈민지역 어머니들 지역탁아 가장 원해」, 『여성신문』 49, 1989.11.17.

우는 직장탁아소 설치문제를 갖고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예정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탁아소'하면 '빈민탁아'만을 연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웬만한 주부들의 경우는 '우리애는 그런데 맡기지 말아야지……'하는 잘못된 생각이 팽배하더라구요.** 탁아소 설치문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고 국가 역시 제도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하루 빨리 시행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장현자 그러기 위해선 여성들 스스로의 자각과 단결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올 초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가입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 탁아입법을 제정하고, 탁아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 우리 여성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여성들의 단결된 힘으로 지역탁아소와 직장탁아소 설치 문제는 꼭 해결 해야 돼요.[29] (강조-인용자)

특히 11호에 실린 위의 좌담은 '탁아'를 둘러싼 여러 층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좌담에 참여한 이들은 탁아가 단지 여성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 노동의 조건과 돌봄 책임의 분배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가령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김성주(작은 아이들의 방 교사)의 발화나, 직장탁아소 설치 문제를 단체교섭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는 전순옥(개구장이 어린이 방 원장)의 발화가 이 지점과 관련된다.

한편 이 좌담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전순옥이 비판적으로 지적한 내

29 장현자·전순옥·김성주·신혜선(정리), 「〈특집〉 빈민 지역 탁아운동 어디까지 왔나 - 자녀 양육의 사회대책 시급하다」, 『여성신문』 11, 1989.02.17., 11쪽.

용으로 "'탁아소'하면 '빈민 탁아'만을 연상"해 중산층 주부들이 탁아를 회피하거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주부들의 태도에는 탁아를 기층 여성의 필요와 결부하여 바라보는 계급적 거리두기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이를 남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양육 책임의 정동 역시 중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육과 돌봄이 여성의 역할로 반복적으로 호명되고 발화되던 상황에서 '엄마'라는 위치에 결부된 책임감은 여성들에게 쉽게 달라붙는 정동이었기 때문이다.

탁아는 돌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려는 시도였지만, 이러한 기획이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이해되고 이에 대한 거부감 역시 낳기도 했던 당대 사회의 분위기[30] 속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내려놓는 선택으로 주부들에게 다가오기도 했던 것이다. 『여성신문』은 생계를 위해 아이를 두고 일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기층 여성들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한편,[31] 서로 다른 계층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육과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는 현실과 그 속에서 여성들에게 책임감의 정동이 부착되는 양상을 함께 쟁점화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과 재생산의 책임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어 온 구조를 문제 삼고, 이를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다.

---

30 이와 관련해서 11호의 〈특집〉 코너에 북한의 탁아정책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태영의 『북한여성』(실천문학사, 1988)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구성된 해당 기사는 북한의 탁아정책이 '여성인력의 사회화'라는 명목 하에 진행된 것임을 소개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는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1976년 4월 29일 제정, 선포된 〈어린이 보육교양법〉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여성인력의 사회진출과 탁아사업이 정비례"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탁아정책으로 인해 "북한여성이 완벽하게 해방되었다거나 가정에서의 모성과 자녀에의 책임이 강조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해방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여성문제 해결의 중요 열쇠"라는 지적이 소개되고 있었다. ; 「부모가 낳고 사회가 키우는 북한의 탁아정책」, 『여성신문』 11, 1989.02.17., 10쪽.

31 일례로 11호 〈논단〉 코너에 실린 글에서 강명순(감리교 도시빈민 여성실무자 회장)은 "기층 여성들은 생존의 한 방편으로 탁아소를 필요"로 했음이 지적된다. "민간탁아가 생기기 전에는 아이들을 방에 가두어 열쇠로 채우고 나가거나 방문 밖에 방치한 채 방 열쇠를 채우고 일터에 나가는 예가 허다"했기 때문에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들 역시 많았음이 언급되기도 했다. ; 강명순, 「〈논단〉 가난한 어머니들과 그 아이들」, 『여성신문』 11, 1989.02.17., 11쪽.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되어야하는 점은 주부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중 구속'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일 안 가진 엄마를 아이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세태를 조명한 아래의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 움직이는 엄마'를 원한다고 많은 주부들이 말하고 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엄마를 무능력한 엄마로 보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 "엄마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논리까지 펴고 있었다. (…) 어쨌든 '엄마를 가정에만 묶어 놓으려는' 지금까지의 가족구조에서 아이들의 이러한 요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는 아이들의 요구에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주부들의 고민이다.[32]

기사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 움직이는 엄마'를 원한다"고 말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으며,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엄마를 '무능력한 엄마'로 인식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었다. 실제로 강남 지역의 한 중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의 엄마가 가사노동 외에 사회적 일을 갖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 역시 "밖에서 일하는 엄마는 우리에게 더 잘해준다", "엄마도 희생만 하지 말고 자기 일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여성신문』이 포착한 '일하는 엄마'에 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요구는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진전된 인식을 보여주는 한편, 주부에게 가사·돌봄의 책임뿐 아니라 가정 밖에서의 활동까지 요구하는 새로운 규범이 부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엄마가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인식이 아들보다 딸에게서, 그리고 사춘기 또래의 여자아이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는 사실은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는 딸들이 엄마의 삶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며 사회 변화의 방향을 포착하기 때문이라 기사는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곧바로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기사 후반부에서 언급되듯이

32 박효신, 「〈쟁점〉일 안 가진 엄마들이 도전받고 있다 - 빛 안 나는 가사노동 바른 이해 아쉬워」, 『여성신문』 20, 1989.04.21., 15쪽.

“아이들의 요구에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것이 주부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부들은 가정에 머무르는 존재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면서도, 양육의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다음 세대의 삶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정동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지점에서 엄마의 삶에 대한 딸들의 요구와 쌍을 이루는 또 하나의 정동, 곧 딸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엄마 세대의 기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당대에 이른바 ‘정경화 신드롬’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여성신문』은 주부들이 자녀 교육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는 현상을 단순한 교육열이나 모성의 과잉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9호 〈기획진단 : 주부문화 변화하고 있다 (3)〉에 실린 한 기사는 딸에 대해 보편화되고 있던 예술 교육 열풍을 한 연구자의 표현을 빌려 ‘정경화 신드롬’으로 명명하며, 그 배경에 놓인 주부 세대의 정동적 조건을 짚어낸다. 기사에 등장한 한 여성은 “딸만큼은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얘기한다.[33] 이는 딸에 대한 교육열이 단순한 재능 계발이 아니라 경제적 자율성을 갖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감정과 불안을 다음 세대에 전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WOMEN'S NEWS

‘정경화 어머니’가 되려는 어머니들

딸의 성공이 나의성공, 온갖 희생 무릅써

1970년대 한국의 한 전래 음악가 바이올린을 들고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했다. 정경화. 그는 한 수재 트레일을 발휘하더니 세계 제일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었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본인 이상 노력은 어머니가 있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정경화의 어머니 서이숙씨는 정경화 세계 정상에 올라설기 위해서 뒤바라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학교생활 1년을 아예 가위하여 공부고사를 치게 하기도 했고 외국에서 유학할 만큼이라 오랜 병에 손목을 잡고 무대 위로 밀고 들어가기도 했다. 딸이 무대에 설 때면 청중들의 반응을 알기 위해 1층, 2층으로 뛰어다니고 혼고무를 살피하여 그 어려운 속에서도 빛나는 그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무대에서입을 고려을 때에고 버텨기를 하는 무릎에게 되면서 제1호가 되는 수밖도 보였다. 그는 "정경화 때에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는가"라는 신념으로 한 길만 보고 왔다. 드디어 결정을 보게 되었고 정경화은 자식을 만들기를 원하는 많은 어머니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물론 "너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소리도 있었지만 그 말이 끊임없이 정경화의 본래성은 사람들을 지도 모르겠다는 후문을 낳기도 했다.

엄마가 극성부린 만큼 되다라

오늘도 많은 어머니들이 '정경화 같은...

오늘도 많은 어머니들이 '정경화어머니'가 되기 위해 제 꿈 돌보지 않고 뛰고 있다. 그러나 그때와는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준우 씨는 오로지 '세계 제일의 연주가' 만지만 오늘의 엄마들은 그 목표를 '대학입시 - 전람회 30장 - 사회적 지위 보장' 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엄마들이 레슨비 올려 놔

한 중에 교수는 세상에 나오는 법칙만 배운다에 대한 것은 유연하여가 없다고 한다면서. 주 레슨비를 엄마들이 올려 놓다는 것이다.

"한 번은 한 어머니가 딸의 레슨을 신청하기 위해서 찾아 왔어요. 연주로 배운 사이어 없으시냐 내일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딸 없이 혼자 오고 없어서 전화상을 알려서 찾아보니 레슨비로 교수는 딸에게 주어야 레슨을 해준다는 조문이 써져 있더군요."

우리나라는 교수는 레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대학입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수에게만 먼저 찾아오는 것이다. 결국 레슨비만 올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혼을 보내라도 배우고 가도 학생이라는 커는 유명한 교수는 실질 제주입고 혼없는 학생에게 무릎도 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예기다.

엄마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실기 성적이 제일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딸에 대한 엄마의 보상심리

예일교육의 특징은 엄마를 통해서 딸이 이해로 나타나다는 점이다.

한국예술고등학교 학생(80년) 중 2인 80%, 그중 여학생이 1인 7명 7명 72명으로 압도적이다.

이렇게 여자가 많은 것은 부모들이 예술교육을 '신랑감' '좋은 혼처' 등이 보장되는 장래에 대한 '안전 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때가 나온다.

예술고등학교에는 어머니들 모임이 있어 이로 '어느 선생이 성적을 많이 올린다' '누구는 '엄마와' 등 정보를 교환한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들어가는 어머니'까지 등장하는 등 그 때마다는 모두 학생가 되어 있다. 심지어 성적 잘 올리는 선생 소개해주는 학생이도 있다고 한다. 어떤 그들에 속해 활동하다는 한 명 아는 가장 흔히 '내가 자식을 위해 해야만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합병하여서 보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엄마들의 보상심리가 대한의 자유하고 있음을 예제할 수 있다.

지기 재주보다는 세상에서 많을 등 수 없는 자리를 자식을 통해 누구의 어머니로 하는 우리나라 같은 곳,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인생을 한번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어머니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에서 만난 200명의 아이들 중 학교 외 학원에 다닌 경험이 없는 아이는 단 2명 뿐이었다. 엄마들은 한 달에 5회씩 꼭 대는 모 대학 놀이방을 비롯하여 2번은 꼭 데리고 가서는 학원, 주산 · 속셈 학원, 미술학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다니고 한다. 그 엄마들에게는 '내가 못 해보으니까 우리만큼은 주고 고생을 해야되도 있는 일 아이만큼 좋게주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예능교육을 위해 수백만원씩 쓰는 어머니나 강 강인한을 쓰는 어머니나 관점없이 '자기는 일찍하지를 못해는 사람'이라고 자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 끊임없는 희생, 그것은 바로 자식의 희생을 일게 되므로 보구하고 있다는 데서 '정경화 어머니'같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여성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PS)고 교육전문가들은 현재 예술교육의 문제점은 예술 · 예술인에 대한 비뚜딘식이 없이 예술을 생존 ·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일부 계층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예술의 자기 성취 방법을 잘못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영향인 비용과 시간은 감수해야만 하는 예술교육의 본래의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려

[그림 3] 9호에 실린 ‘정경화 신드롬’과 관련한 기사

같은 호에 실린 「‘정경화 어머니’가 되려는 어머니들」은 이러한 정동의 전이가 보다 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경화 어머니’가 되려는 여성들은 예술적 성취 그 자체보다는 예술 교육을

33 윤양헌, 「사회에 거는 기대 자식에게 쏟는다」, 『여성신문』 9, 1989.02.03., 14쪽.

대학 입시와 안정적인 소득, 사회적 지위, 좋은 혼처로 연결되는 '안전한 경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예술 중·고등학교가 새로운 명문학교로 부상하고 이러한 교육 전략은 중산층을 넘어 달동네에까지 확산되기도 했다.[34] 이는 딸의 성공이 곧 엄마 자신의 성공이 되는 구조, 즉 주부의 자기 성취에 대한 욕망이 자녀의 성취를 통해 간접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여성신문』은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엄마들의 '보상 심리'를 개인의 욕망이나 모성의 일탈로 환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보상 심리는 경제 능력을 갖지 못한 채 가정 내 역할에 머물러야 했던 주부 세대가 경험한 좌절과 열등감, 그리고 사회적 인정의 결핍이 '축적'된 결과로 제시된다. 주부들은 스스로를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자녀, 특히 딸의 미래를 관리하고 설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의미화하려 했다. 자녀 교육에 몰입하는 여성(정경화 신드롬)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정의 결핍에 따른 축적된 정동과 그 순환이 있기 때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일종의 '관리' 주체로서의 주부가 부각되는 과정에서,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주거와 생활환경의 유지·조정을 둘러싼 책임 역시 주부의 몫으로 호출되는 징후를 1980년대 후반 『여성신문』의 기사들을 통해 감지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한편 이 장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주요하게 지적되어야할 사항 중 하나는 『여성신문』이 자아 실현과 모성의 양립이라는 '환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들의 상황과 감정을 둘러싼 구조적 모순을 '슈퍼우먼 신드롬'이라는 현상으로 또한 짚어내고 있었다는 점이다.[35]

---

34 박효신, 「'정경화 어머니'가 되려는 어머니들」, 『여성신문』 9, 1989.02.03., 15쪽.

35 한편 '슈퍼우먼 신드롬'에 대한 『여성신문』의 비판은 여성에게 일과 양육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의 압박을 폭로하는 대항 담론의 성격을 지녔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삶의 형식 자체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미래로 긍정되었다는 점 역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인용한 좌담의 참여자들 역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자아실현과 모성의 양립은 도달 가능한 삶의 형식이라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제도적 조건의 개선에 기대를 두는 한편, 이미 인식하고 있던 양육과 돌봄

박혜란 한 번도 아이 때문에 직업을 놔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신경숙 갈등은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직장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 그래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극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했어요. 애가 둘 생겼을 때에는 애보는 사람을 둘을 두었어요. 그러면서도 직업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엄마가 모르는 많은 소외감을 주었을 거예요.

박혜란 그게 바로 자녀에게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것 아닙니까.

신경숙 그래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소외받으면 어떡하나, 친구들이 엄마가 집에 없는 애라고 함부로 대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늘상 머리 속에 꽉 차 있었지요. 더구나 주변에서 '엄마가 자식한테 죄를 짓는구나'하는 눈길을 보낼 때, 또 이웃 사람이 '아휴, 애보는 아줌마가 어쩌면 그렇게 애를 못키우죠?' 할 때는 정말 속이 상하드라구요. 그럴 때는 탁아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진정서를 각 기관에 쓰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인력은 요구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해줄 제도는 전혀 안 돼 있는 게 화가 치밀더라구요.

박혜란 그래요. 육아는 개인 여성이 책임지라는 식이죠. 개인 차원에서 이겨내면 다행이고 못하면 여성의 능력으로 치는 거 말입니다. (…)

신경숙 그래도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느끼는 죄의식은 어떻게 집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회와 주변에서 보는 눈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박혜란 그게 강요되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전업주부일 때 옆집 아주머니가 얼굴도 모르는 대학교수라는 이웃 여자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

의 책임 및 감정의 불균등한 귀속이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삶의 형식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거나 재편될 것인지까지 충분히 시야에 넣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

신경숙 누구도 수퍼 우먼은 못돼거든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다 잘 해낼 수는 없다구요. 주부가 직업을 가지면 가정에서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갈등은 없나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월급·지위도 올라가야 하고 일의 질적 향상도 해야 하는데 내가 가정 때문에 일터에서 열심히 못 한다는 죄책감으로 눈치보며 살기가 일쑤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여자에게 두가지 반응을 보여요. 같은 여자끼리도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직장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꼭 저래야 되나'하고 손가락질 하고 또 직장에 나와 가정 일을 못잊어 하는 사람을 보면 또 보기 싫어 하고…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36]

21호에 실린 좌담의 참석자들은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당대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식을 문제 삼으며, 일하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죄책감을 일종의 강요되는 죄책감이라 문제화한다. 특히 신경숙(노바스코서 은행 근무)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다 잘 해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이 엄마 역할 역시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 좌담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하는 엄마의 죄책감이 일종의 강요된 감정임을 인식하고 있던 좌담 참여자 신경숙 역시 이러한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면은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이 불균등하게 부과되는 구조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그 책임 속에서 형성된 감정까지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좌담의 한 섹션 제목이 '슈퍼우먼 신드롬에서 벗어날 권리'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모성과 자아실현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삶의 형식이 출현하고 있었지만, 양육과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귀속되는 방식까지 함께 재편된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불안과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점은 특정한 감정의 귀속 역시 여성의 삶을 둘러싼 불평등의 중요한 층위였음을 보여준다.

---

36 박효신 정리, 박혜란·신경숙, 「일 가진 엄마의 죄없는 죄책감」, 『여성신문』 21, 1989.04.28., 16쪽.

이때문인지 『여성신문』은 일하는 여성들의 죄책감을 중화할 수 있는 여성학적 앎과 관련한 기사들을 싣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아이의 애착이 어머니와만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연구를 소개한 39호의 기사가 그 예시가 될 것이다.[37] 이밖에도 직업을 가진 엄마가 특히 여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38]

이와 같이 『여성신문』이 여러 코너를 통해 여성학적 앎을 유통, 전파하는 방식으로 지면을 구성한 것은 단지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신문』이 여성에게 특정한 감정이 반복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고 할 때, 여성학적 앎은 여성 독자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상대화하고 그 감정이 형성된 조건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로도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3 '관리 정동'의 추인과 재배치, 주부 생활세계와의 교섭

하지만 이러한 정동의 귀속과 관련해 『여성신문』이 주부가 지닌 구체적 감각과 감정의 부정성만을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와 관련해서 주부의 '관리 정동'과 관련한 『여성신문』의 이중적 태도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주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면, 이 장에서는 주거와 소비 그리고 생활의 유지와 조정을 둘러싼 책임을 수행하며 주부들이 축적해 온 '관리'의 감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신문』에는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관련한 기사들이 실리기도 했는데, 이는 '주부'들의 내집마련과 관련한 관심과 욕구를 방증하는 동시에 1980년대 후반 발생했던 '전세파동'이 그 배경에 있기도 했다. 『여성신문』은 주택 문제와 관련해 당시 제출되고 있었던 정부 중심의 시책들이 근본적으로 중산층 가족 모델에 입각한 중산층 가족 중심적임을 비판하면서도[39],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주

37 「아이는 꼭 어머니가 키워야 되나: 지속적인 애착관계가 더 중요해 윤현숙 교수 논문서 밝혀」, 『여성신문』 39, 1989.09.08., 4쪽.

38 「직업가진 어머니 여아에게 긍정적 영향」, 『여성신문』 37, 1989.08.24., 9쪽.

39 분당과 일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여성신문』의 비판은 정부 주택 정책이 중산층 가족의

거 문제가 가정 내부의 판단과 책임으로 전가되고 그 부담이 주로 주부에게 귀속되는 과정 역시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다룬 14호의 〈특집〉 기사에서 부동산이 점차 여성의 일이 되고 있는 징후들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기도 했다.

>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옆집 슬기 엄마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새하얀 목련꽃이 피기 시작하는 4월의 문턱에 들어서기 전부터 바쁘게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금의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시외곽 변두리의 전세방 두 칸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작년 말 돌아가신 슬기 할아버지의 얼마 안되는 유산인 시골의 논 몇 마지기가 힘이 되어 겨우 자기 집을 마련했다며 환하게 웃는 슬기 엄마의 웃음에는 남의 집살이 10여년의 아픔이 진하게 배여 있었다.[40]

> 김인순 씨는 75년 울산에서 보증금 5만원에 월세 1만 2천원 짜리 사글세 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당시 남편 봉급은 6만 8천원. 그날부터 언젠가는 내 집을 갖겠지 하는 꿈과 그 꿈에 맞추려는 노력을 한 시도 게을리 해 본 적이 없다. 먹고 입는 것 외에 모조리 저축해서 1년만에 60만원 짜리 전세방으로 옮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다시 1년만에 전세방은 꼭 두 배인 1백 20만원으로 뛰었다. 2백만원이란 돈은 월급장이가 일년내 벌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었다. 언제 전세값 올려달라지 모르는 불안, 뼈골 빠지게 벌어봐야 방값에 털어넣고 났을 때의 허무

주거 안정이라는 모델을 암묵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25호에 실린 한 기사는 농민·소작농·철거민 세입자들이 적절한 대책 없이 내몰리는 현실을 조명하며, 해당 정책이 주택 문제를 '중산층의 불안'으로만 환원한 결과임을 드러냈다. 이는 국가 정책이 가족 단위의 중산층의 삶을 정상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삶을 주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 「〈쟁점〉 중산층 주택난에 농민땅 희생될 수 없다」, 『여성신문』 25, 1989.05.26., 10쪽.

40 허석렬, 「서민 주택 마련과 멀리 있는 주택 정책」, 『여성신문』 14, 1989.03.10., 10쪽.

감에서 헤어나려 그는 용단을 내렸다. 작년 회사에서 사원 아파트를 분양할 때 30평 짜리 아파트를 무조건 신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년 4월 아파트가 준공돼도 그는 입주할 수가 없다. 보증금·1차·2차 중도금 1천 8백만원은 동생집 저당잡힌 돈 8백만원과 빚을 얻어 어떻게 내었지만 나머지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 집은 세를 놓고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더 전세를 살아야 한다. 얼마나 더 허리를 졸라매야 내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41]

물론 가족(경제) 관리 범주의 광고가 1970년대 후반『여성동아』를 비롯한 여성지에 등장한 것을 근거로 1970년대 후반에 이미 가족 경제를 관장하는 일이 여성에게 부과된 새로운 규범적 역할이었다고 논의되기도 한다.[42] 가족 경제의 관리자로서 주부가 부각된 과정과 그 추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1980년대 후반 주거 위기와 교육 경쟁,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주거·교육·가족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감이 여성에게 점차 가중되고 있음이 이 시기『여성신문』기사(뿐만 아니라 광고)들에서 포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감과 압박감은 돌봄과 재생산이 여성의 몫으로 반복적으로 호명되고 의미화되어 온 사회적 조건 속에서 주부들에게 특히 귀속되기 쉬운 감정들이었다. 물론 주거와 관련한 관리 압박감이 여성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감당되고 조정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귀속된 책임과 감정이 계층에 따라 동일한 귀속 구조를 지니면서도 어떻게 다르게 경험되었는지 역시 비교의 시야 속에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주거 경험을 주로 '관리'와 '전략'의 문제로 경험하는 중산층 여성과 '박탈'과 '폭력'으로 경험하는 하층 여성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대 소설에서 이러한 여성 간의 '차이'가 다뤄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이혜숙의 소설「환상의 둥지」(『한길문학』, 1990년 9월호)는 당

41 「주택자금은 구입자에게 쉽게 돌아가야-저축해서 집사기란 하늘의 별따기」,『여성신문』 14, 1989.03.10., 10쪽.

42 최시현,『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창비, 2021, 81쪽.

시의 전세 파동이 파출부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하층 주부 여성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조건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그린다. 이와 대조하여 중산층 주부는 돌봄과 가사노동을 외주화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가 주어졌음이 제시되고 있다. 모두 연로한 시어머니를 돌봐야하는 위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셋방살이를 하는 주부와 자가를 소유한 주부 사이에는 돌봄을 수행하는 방식과 감당해야 할 부담이 현저히 다른 것으로 소설은 재현한다. 소설에 따르면 주거 안정성의 차이는 누가 돌봄을 '감내'하고 누가 돌봄을 '외주화'할 수 있는지를 갈라놓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동한다. 이때 자신의 '둥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중산층 주부의 감각은 하층 여성의 박탈의 경험과는 접속 불가능한 분절된 감각으로 제시된다.[43]

그러나 『여성신문』은 이와 다른 시선을 선보이기도 했다. 가령 『여성신문』 52호 〈주부가 본 세상〉 코너에 실린 「남현동 철거촌을 찾아서」는 주부의 시각에서 주거 박탈을 폭력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철거민의 현실을 다룬 기사이다.

> 그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상인 영구임대주택과 적절한 이주대책비가 과연 지나친 요구일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란 분명 이런 모습은 아닐텐데. 그들과 얘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개인적인 무력감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했다. 지금의 주부라는 내 위치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 지난 추석에도 차례조차 못지낸 채 공동으로 라면을 끓여먹었다는 그들. 매서운 추위는 곧 다가올텐데 **김장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그들에게 김장 담글 때 우리 서로 1~2포기씩이라도 더하여 그들에게 갖다주면 어**

43 「환상의 둥지」의 결말부 마지막 장면에서 중산층 주부 명옥은 파출부 여성들의 주거 불안과 돌봄 붕괴의 현실을 예전 파출부였던 옥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접하면서도, 옥섭의 말과 행동을 집에 이상하게 집착한다고 거리두기를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으로 향한다. 이 소설에서 전세가 폭등을 계기로 주거의 위기를 겪음과 동시에 파출부 노동과 시어머니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과부하가 걸려 건강마저 잃어버린 상태인 하층 여성의 경험은, '자기 집'과 가정의 안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중산층 주부의 감각과 끝내 접속되지 못한 채 분절된 상태로 남는다.

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44] (강조-인용자)

이 기사는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영구임대주택과 이주대책비를 '지나친 요구'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주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감각으로 철거민의 무너진 일상을 감지한다. 그것은 바로 철거민들이 "김장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것으로, 재생산 영역을 담당하며 가족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노동을 수행해야 했던 주부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감각이기도 했다. 김장철이 되었는데 철거민들이 김장을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감각은 다소 엉뚱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부의 '관리' 정동과 관련된 감각은 역설적으로 무너진 타인의 삶을 '유지되지 못한 일상'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로 작동한다. 김장할 배추를 나누자는 제안으로 이어지는 이 기사 속 주부의 감정과 목소리는 주부의 관리 정동과 감각이 곧바로 계급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나 보수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폭력과 박탈의 경험에 불완전하게나마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신문』은 '주부'의 감정을 문제의 '장'으로 쟁점화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주부가 본 세상〉이라는 코너에 실린 글과 같이 주부들에게 귀속되는 정동이 곧바로 보수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장면들을 지면에 배치하기도 했다. 이는 주부의 경험과 감정이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자, 그러한 감정을 재배치한 시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의 지혜

병 속을 깨끗이 씻으려면

병속은 씻기가 힘들다. 병에 물을 조금 넣고 달걀 껍질을 부숴 넣고 병을 흔들면 깨끗이 씻겨진다.

신문지를 찢어 넣거나 모래를 넣고 비눗물과 함께 흔들어도 잘 씻긴다.

기름기가 있을 때는 미지근한 비눗물을 진하게 타서 병에 넣어 30분쯤 된 후에 같은 방법으로 씻어 낸다.

손에 묻은 파 냄새 제거법

파를 다듬고 나면 손에서 파 냄새가 나며 맵기도 하다. 또 물로 씻어 보아도 파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데 이럴 때는 식초로 손을 닦으면 냄새가 깨끗하게 없었진다. 독특한 파 냄새는 산에 쉽게 분해되기 때문이다.

접시에 금이 가면 우유로

접시에 약간 금이 갔을 경우는 금이 간 접시를 우유 속에 넣고 1시간 정도 끓이면 잔금 사이에 우유가 차서 금이 간 부분이 메워진다. 이때 우유가 넘쳐 흐르거나 솥에 눌러 붙지 않도록 불꽃을 조절해야 한다.

술에 약한 사람

술에 약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할 경우에는 미리 커피나 홍차 또는 우유나 날계란을 먹어 두면 일찍 취하는 것을 막아준다.

THE WOMEN'S NEWS / AUG.25, 1989 / VOL. 37 [9]

[그림 4] 『여성신문』 37호
'생활의 지혜' 코너

한편 『여성신문』이 주부들에게 귀속되던 정동을 재배치한 양상 또한 드러난다고 할 때 이는 '주부'를 주요한 여성 대중이자 독자로 호명한 매체적 선택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했

44 이성미, 「〈주부가 본 세상〉 남현동 철거촌을 찾아서」, 『여성신문』 52, 1989.12.08., 7쪽.

다. 창간 1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지면 개편은 『여성신문』이 '주부'를 주요 독자로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여성신문』은 38호에서 지면 개편을 예고하면서 39호부터 "주부칼럼 '생활속에서'"를 신설하고, 공해·소비자 문제 등을 보다 깊이 다루겠다고 밝혔다.[45] 이후 39호부터는 '소비자'가 독립적인 코너로 마련되는 등 주부의 소비와 생활환경을 다루는 지면 역시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부의 살림과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성 기사들(〈그림 4〉 참조)도 지면에 빈번하게 등장했다.[46]

이러한 지면 구성은 주부의 생활세계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고 이들과 접속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소비와 살림을 비롯한 가족의 재생산 영역을 관리하는 존재로서 주부의 기존 역할을 전제하고 추인하는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주부의 재생산 경험과 관리 정동을 둘러싼 이러한 모순적 양상은 『여성신문』이 '주부'를 여성 대중이자 주요 독자로 조우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긴장과 균열이기도 했다. 가사노동을 비롯한 재생산 노동을 주로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주부들의 실존적 상황이 존재했고, 『여성신문』은 이러한 여성의 생활세계에 '접속' 역시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때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서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가사노동이 '자본'에 의해 일부 사회화되고 있었다는 맥락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이 자본에 의해 상품화될 때, 그 상품화는 주부들을 부분적으로 '해방'시키는 동시에 또다른 위험 역시 낳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무크지 『여성』 3호에서 1980년대 후반 '주부운동론'을 논했던 이옥경이 가사노동이 생산노동(아래 글에서는 '사회적 노동')과 맺는 복잡한 관계성을 지적한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규정들을 염두에 두면서 가사노동, 사회적 노동, 재생산노동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종래까지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과의 관계에

45 「알림」, 『여성신문』 38, 1989.09.01., 4쪽.

46 한편 소비전담자라는 주부에 대한 이미지를 비판하는 기획 기사들이 초창기 『여성신문』에 실리기도 했는데, '살림'이 단지 소비가 아니라 '생산'행위라는 재의미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기획진단〉 주부는 정말 소비전담자인가」, 『여성신문』 4, 1989.12.23.

대한 논의는 대체로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이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연결되어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에 대한 관심 내지 가사노동에 대한 관심은 주부의 가사노동이 부불노동 내지 부분지불노동이 됨으로 해서 자본이 이익을 보는 측면과,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여성노동이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 양 영역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는 측면에 기울어져 있었다. 물론 이 측면이 양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측면으로만 집중됨으로 해서 양자관계의 또 다른 측면이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왔음도 사실이다.

그 다른 측면이란 무엇인가. **가사노동은 인간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인데 그 중의 태반은 사회적 노동에서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는 노동이다. 따라서 그 재화의 질과 양이 어떠냐에 따라 가사노동의 질과 양은 결정적으로 규정을 받는다.**

(…) 여성을 가사노동만에 더욱 고착시키는 이러한 생산방식이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볼 때 퇴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통제받지 않는 자본의 손에 내맡겨져 있는 한 이러한 퇴행은 일종의 자구책으로 더욱 확산되어갈 것이다.** 그에 따라 주부노동의 파행성과 계층에 따른 생활의 질적 격차 또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47] (강조-인용자)

이옥경은 기존의 사회적 노동과 가사 노동에 관한 논의가 주로 자본의 이윤 관철 메커니즘이나 여성이 겪는 차별과 배제에만 집중하느라, 가사노동이 "사회적 노동에서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는 노동"으로서 지니는 상호작용의 구체적 측면을 간과했음을 비판했다. 즉 가사노동의 질과 양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재화의 성격에 의해 결정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생략했지만 이러한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옥경이 언급했던 사례는1980년대 중후반 당시의 '화학 간장 파동'이었다. 이옥경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도시 노동

47 이옥경, 앞의 글, 154-157쪽.

자 가구의 협소한 주거 환경(장독대 등 전통적 제조 공간의 부재)이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한 기층 노동자 여성들, 그리고 젊은 중산층 주부들은 더 이상 집에서 오랜 숙성 기간이 필요한 조선간장을 직접 담가 먹지 못하고 시장에서 왜간장(일본식 간장)을 사 먹는 방식으로 가사노동을 대체해 나갔다. 그러나 이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던 왜간장이 실상은 "콩은 거의 안 넣고 만든 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1985년의 '화학 간장 파동'은 국가와 자본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방어의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 내 주부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부들의 관리 노동이 계층별로 어떻게 다른 실천을 낳았는지 역시 이 글이 짚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에 유별난 관심을 둘 수 있었던 상류층 주부들은 비싼 돈을 주고 안전성(혹은 자본의 신뢰도)이 확보된 일제 '기꼬만 간장'을 사는 선택 등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불안 속에서도 시장의 위험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48]

호수	코너	기사 제목	저자
9호		공해추방운동은 살림운동	서진옥(공해추방운동연합 공동의장)
10호	생활환경	생산자·소비자가 서로 책임진다 -시민모임 〈한살림 공동체 소비자 협동조합〉, 무농약 농산물을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	이미숙(기자)
34호		주부들 공해추방에 앞장선다: 공추련 여성단체 연합 등 조직운동으로 확산	
38호		"합성세제 추방은 주부들 손으로" -공추련·한살림 등 실천방법 제시	정혜옥(기자)
39호		주부들 공해추방에 앞장선다: 공추련 여성단체 연합 등 조직운동으로 확산	

48 이옥경은 소동 이후에도 "여전히 슈퍼에서 값싼 화학간장이 가장 잘 팔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위의 글, 156쪽.

46호		주부 중심 공해추방 지역운동 활발-공장이전, 보상금 따내는 등 〈시민연합체〉도 구성	정혜옥(기자)
47호		'소협'으로 주부운동 확산 시도-민우회 주부분과 소비자협동조합 설립키로 / 소모임에서 공동주문·공급받는 공동체 형식-동네·지역문제에 공동 토론도	이미숙(기자)
47호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자" 주부·여성단체 앞장-종류·요일별 수거 등 정부대책 뒤따라야	
52호		농민·소비자 하나된 신명난 한마당-한 살림 가족잔치, 역할극·물건나눔 통해 반성과 신뢰 돈독히	정혜옥(기자)
55호	80년대여 안녕! 80년대 안타까웠던 일 한가지	어머니들이여 깨어나라	문혜영 (한살림소협 이사)

[표 2] 『여성신문』에 실린 공해추방운동·생활협동조합운동 관련 기사들

이러한 일종의 '먹거리 공해' 문제로 인해 결국 통제받지 않는 자본의 손에 내맡겨진 상품을 더욱 꼼꼼하게 선별하고 구매하는 고도화된 소비자 주체 역시 당시 부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후반 생활협동조합(생협) 운동과 '한살림' 공동체의 등장(1986),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초기 여성 소비자운동은 일차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담론을 공적 의제로 확장하려는 실천들이었다.

『여성신문』 역시 창간 초기부터 이러한 소비자 주권 담론과 '먹거리 공해'뿐만 아니라 여러 공해 의제를 지면에 적극적으로 중계하며, 주부들의 '살림'이 자본의 탐욕에 저항하는 일종의 '생활 정치(life politics)'이자 대안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한살림과 공해추방운동연합 등의 움직임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들을 실었고, 1989년을 결산하는 55호의 기사에서는 '여성계 10대 뉴스' 중 하나로 "주부들 소비자·환경 문제에 적극 나서"를 꼽을 정도로 여성계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평가하기도 했다.[49]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공론장 형성의 노력 이면에는 주부를 자본주의적 소

비 시장의 주요 행위자이자 관리·감시자로 재배치하며 여성의 관리 정동과 재생산 역할을 강하게 추인하는 면모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생협과 한살림을 통한 대안적 시장의 형성은 주부들을 소비자 운동의 적극적 주체로 호명하는 듯했지만, 역설적으로 오염된 시장으로부터 가족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상품의 성분을 부단히 학습·선별·감시해야 하는 고도화된 '도덕적' 재생산 노동을 다시금 주부 개인의 몫으로 안착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여성신문』에서 자신들이 펼치는 운동을 적극 소개하기도 했던 당시 공해추방운동의 당사자들은 "공해추방운동은 생명을 살려내는 운동이요, 이 운동은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모성애를 가진 여성들이 동참해야 하는 살림운동"[50] 등이라 말하며 운동을 젠더화하는 발화들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발화는 주부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기존의 젠더 역할을 재생산하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했다.[51]

---

49 「격동의 89년, 여성계 10대 뉴스」, 『여성신문』 55, 1989.12.29., 12쪽.

50 서진옥, 「〈특집〉 공해추방운동은 살림운동」, 『여성신문』 9, 1989.02.03., 11쪽.

51 주부들의 교육민주화 문제에 대한 개입과 실천을 다룬 기사들에서도 이러한 논조가 비슷하게 나타났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여성신문』은 1980년대 후반 중요한 사회적 의제 중 하나였던 교육민주화 문제를 여성, 특히 주부의 시각에서 조명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참교육 운동, 학부모회의 등장 등 교육 현장의 주요 논쟁과 사건을 다루면서, 주부를 교육 문제의 주요 당사자이자 변화를 이끄는 시민적 주체로 제시했다. 이는 주부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제도의 개혁과 공적 가치 형성의 매개자로 재위치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조는 주부의 삶을 억압적 제도에 종속된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예비하는 문화적 토대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이론적 언어와 담론들을 『여성신문』이 소개하는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하지만 교육운동에서도 주부의 관리 감각은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여성의 시민적 주체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자원으로 재배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관리할 책임이 여성에게 귀속된 구조는 다시 추인되었다.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교직원의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교육민주화의 전기마련을 기대하며」, 『여성신문』 26, 1989.06.02., 4쪽.; 「〈일과소식〉 "의식화 교육, 정부측 주장이다" 여성민우회 등 주최 의식화교육 공개토론회서 밝혀」, 『여성신문』 26, 1989.06.02., 6쪽; 신혜선, 「"교육의 주체로 당당히 나선다"-교육세 바로쓰기, 돈봉투 안주기 운동으로 시작할터」, 『여성신문』 40, 1989.09.15., 9쪽. ; 최선숙, 「〈어느 여교사의 편지〉 "왜 징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저희들의 출근길을 막은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여성신문』 40, 1989.09.15., 9쪽.

한편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신문』의 지면에 살림과 소비와 관련한 생활성 정보들이 대거 배치되었던 것과 관련한 배경도 함께 해명된다. 『여성신문』은 주부를 가정 내의 수동적 소비자로 묶어두는 기존 사회의 가부장적 인식을 비판하면서도, 자본의 상품화에 기대어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는 주부들의 현실 그리고 '공해' 등 외부 위기로부터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대안적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주부들의 실존적 처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신문』이 유통한 수많은 '현명한 살림과 소비의 지혜'들은 재생산을 담당하는 주부의 실존적 처지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본과 직접 마주하며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주체적 가계 경제의 관리자'로 변모하고 있었던 이 시기 위태로운 주부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추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신문』 창간 초기의 주부 기획은 주부에 대한 기존의 가부장적 인식을 비판하면서도, 가정을 둘러싼 안팎의 위기에 대응하고 일상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조정하는 주부의 '관리' 감각을 적극적으로 호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외부 세계의 박탈과 위험을 주부 특유의 일상적 감각으로 감지하고 해결하려는 양상 속에서 주부의 관리 감각은 공적 연대와 생활정치의 자원으로 새롭게 재배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배치는 가족의 필요와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그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책임의 감각을 여전히 여성의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부의 '관리 정동'을 일정하게 추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철거촌의 무너진 일상을 관찰하며 타인의 고통에 접속하려 했던 공적 연대의 전위적 감각이든, 먹거리 공해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성분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검증했던 주부들의 실천이든, 『여성신문』이 주부에게서 발견한 대안적 주체성은 이들이 생활세계에서 수행해 온 역할과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에 일정 부분 기대고 있었다.

여성의 생활세계에서의 경험과 재생산 역할을 정치적 자원으로 재의미화하는 생활정치가 부상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기존의 성별화된 역할을 일정하게 전제하고 다시 긍정하게 되는 모순과 긴장은 『여성신문』의 지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52] 그런데 이러한 긴장은 『여성신문』의 여성주의적 지향이 불철저했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나 여성 대중에 대한 추수로만 단순히 바라보기 어렵다.

『여성신문』은 여성에게 관리와 재생산의 책임이 불균등하게 귀속되는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주부들이 실제 삶에서 축적해 온 살림과 소비의 경험, 관리의 감각을 적극적으로 호명하고 '살림'과 '소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성 기사를 실었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주의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여성 대중인 '주부'를 주요 독자로 상대하며 그들의 생활세계에 적극적으로 '접속'했던 『여성신문』의 매체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신문』에 나타난 '관리 정동'의 추인과 재배치는 생활정치가 내포한 모순의 한 양상인 동시에 여성주의적 전망과 주부의 생활세계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긴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여성해방의 시차와 대중적 여성주의 매체의 난점

이 글은 당대 여성주의 사회세력이 대중화의 국면으로 전환하며 대중적 여성주의 매체로 『여성신문』을 발행했다고 할 때, 여성 대중의 다수를 차지했던 '주부'와 필연적으로 조우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 이때 '주부'는 전업주부에 한정된 범주라기보다, 가족 관계 안에서 재생산의 책임이 집중되었던 여성의 젠더화된 위치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여성신문』이 주부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대상으로 발견하고 의미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대중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성취와 긴장을 함께 조명하고자 했다.

먼저 2장에서는 『여성신문』이 주부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을 여성주의적 '뉴스 가치'의 대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성신문』은 주부의 자살과 홧병, 양육과 돌봄을 둘러싼 죄책감과 책임의 감각 등을 개인의 병리나 사적 갈등으로 환원하지 않고, 특정한 감정과 책임이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귀속되는 문제로 재해석하였다. 또한 '정경화 신드롬'과 '슈퍼우먼 신드롬'을

52 이후 한국여성민우회의 생활문화운동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모순과 긴장이 비판적으로 성찰된 바 있다. 김경희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생활문화운동을 평가하면서, 그간의 운동이 성역할의 경계 자체에 도전하기보다 기존 주부 역할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의 차별과 권리 부재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내부적 반성이 2000년대에 제기되었다고 지적한다. 김경희, 앞의 글, 204쪽.

통해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일과 모성의 양립을 요구받는 여성의 감정이 어떠한 정동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포착하였다. 이처럼 『여성신문』은 주부의 경험과 감정을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여성학적 앎을 저널리즘의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여성에게 감정과 돌봄의 책임이 불평등하게 귀속되는 구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이어서 3장에서는 주거 위기와 소비 환경의 변화 속에서 주거와 먹거리,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주체로 부상한 주부의 모습에 주목하고, 이러한 '관리' 정동과 재생산 역할이 『여성신문』의 지면에서 추인되고 재배치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성신문』은 일상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주부의 감각이 타인의 고통에 접속하는 공적 연대의 전위적 감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포착하는 한편, '공해'에 대응해 자본을 '감시'하는 시민성 역시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선별하며 감시해야 하는 고도화된 재생산 노동을 다시 주부에게 귀속시키는 모순 역시 내포하고 있었다. 주부의 '관리 정동'에 대한 이러한 추인과 재배치는 여성의 생활 경험과 재생산 역할을 정치적 자원으로 재의미화했던 생활정치의 모순과 긴장을 드러내는 동시에, 여성주의적 전망과 주부의 생활세계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양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동시에 여성 대중을 적극적으로 상대했던 『여성신문』의 매체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았다. 여성주의적 전망과 여성 대중의 생활세계가 한 지면에서 접속하고 교섭했다는 점에서, 『여성신문』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균열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여성신문』의 주부 기획에서 포착되는 이러한 긴장은 1980년대 후반 여성의 삶을 둘러싼 변화가 생활세계에서 어떠한 시차와 불균등성을 동반하고 있었는지를 감지하게 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가족 내 재생산의 책임과 이를 둘러싼 정동의 귀속이 그와 동일한 속도로 재편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를 기존 젠더 질서의 잔존으로만 단순히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모성이나 일과 모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드러나듯, 여성에게 귀속되어 온 책임은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기도 했기 때문

이다. ‘정경화 신드롬’이나 ‘슈퍼우먼 신드롬’과 같은 정동적 현상은 바로 이러한 변화와 지속이 여성의 생활세계에서 중첩되며 나타난 양상이었다. 이와 같은 정동적 현상은 여성해방을 여성의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감정의 층위에 주목해 시차와 불균등성 속에서 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다.[53]

그런데 이러한 시차와 불균등성이 당대의 여성주의 매체 기획과 실천 속에서도 일정하게 감지되고 있었다는 점이 또한 중요할 것이다. 『여성신문』이 주부의 생활세계에서 경험된 감정과 정동적 현상을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문제화하는 한편 주부의 관리 정동을 추인하고 재배치했다는 점은 여성해방의 시차가 여성주의 매체의 기획과 실천 속에서도 하나의 긴장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성신문』의 주부 기획은 이처럼 여성주의 사회세력이 여성 대중의 구체적인 생활세계와 접속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가능성과 난점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중적 여성주의 매체로서 『여성신문』이 지닌 역사적 성격을 파악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여성신문』 (0호-55호, 1988.10.28.- 1989.12.29.)

이혜숙, 「환상의 둥지」, 『한길문학』, 1990년 9월호.

김효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4.10.

53 이러한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여성문학에서 여성의 사회적 주체화와 기존 젠더 질서 사이의 간극이 문제화되는 양상과도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김미지는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을 비교하면서, 법적·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애에서 반복되는 젠더 구조와 경험의 문제에 주목한 바 있으며 이들을 ‘여성 서사’의 계보 속에서 읽을 때 상호텍스트적 의미망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김미지, 「『82년생 김지영』(2016)과 겹쳐 읽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 『현대소설연구』 제8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8-9쪽.

2. 단행본

또 하나의 문화 편, 『주부, 그 막힘과 트임-또 하나의 문화 제6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0, 128-137쪽.

최시현,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창비, 2021, 81쪽.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23, 38쪽.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역, 『정동적 평등-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 아카데미, 2016, 30-31쪽.

3. 논문

김경희, 「진보적 대중여성운동의 연속성과 변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25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184-216쪽.

김명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현황과 확산 전략」,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1년 가을, 429-435쪽.

김미지, 「『82년생 김지영』(2016)과 겹쳐 읽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 『현대소설연구』 제8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5-35쪽.

김영선, 「1980년대 여성운동의 새로운 여성 주체 기획과 주부운동론」, 『여성과 역사』 제28호, 한국여성사학회, 2018, 241-266쪽.

김정은, 「또 하나의 집회-여성주의 문화운동 '또 하나의 문화'가 지닌 '제3의 장소성」, 『구보학보』 제27호, 구보학회, 2021, 213-270쪽.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한국여성학』 제25권 제4호, 한국여성학회, 2009, 141-174쪽.

이옥경, 「주부운동의 논리와 조직」, 『여성』 제3호, 창작과비평사, 1989, 151-170쪽.

Abstract

Kim Jeongeun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Women's News*(Yeoseong Sinmun), founded amid the pop-

ularization of the women's movement in the late 1980s, encountered "housewives," who constituted a large part of the female public, and explores the achievements and tensions of feminist journalism that emerged through this encounter. *The Women's News* constructed women's concrete experiences and emotions—including housewives' suicide and hwabyeong, as well as feelings of guilt and responsibility surrounding childcare and care work—as matters of feminist "news value," and reinterpreted them as structural problems in which particular emotions and responsibilities were repeatedly assigned to women. At the same time, in repositioning housewives' sensibilities of managing housing, consumption, and the living environment as resources for public solidarity and everyday-life politics, the newspaper also revealed tensions arising from its renewed affirmation of women's "managerial affect" and reproductive roles. Rather than reducing these fissures to a lack of feminist commitment, this article understands them as emerging from the negotiation between visions of women's liberation and the lifeworld of the female public. Through this analysis, the article illuminates the uneven temporality of women's liberation, in which changes in women's lives unfold at different speeds across multiple dimensions, while also examining the difficulties faced by a feminist medium addressing a mass female readership in negotiating with the concrete lifeworld of the female public.

Key words: *The Women's News*(Yeoseong Sinmun), feminist journalism, housewives, affective inequality, managerial affect, politics of everyday life

논문제출 / 2026.07.15.
심사완료 / 2026.08.04.
게재확정 / 2026.08.06.